

만찬 환영사

2016. 10. 24

뱅크스 클럽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위 원 회

임 종 룡 위 원 장

I. 환영인사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 서울에서
짜란 짜른수완(SARUN Charoensuwan) 태국 대사님*을 비롯한
아세안 각 국 대사님들을 만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 ASEAN Committee in Seoul 의장

재 참석 (*15년참석)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브루나이
'16년 신규참석	- (대사 신규부임) 태국('16.3월), 미얀마('16.1월) - (작년 대리참석) 베트남

※ 필리핀, 캄보디아는 대리참석

올해 새로 부임하신 미얀마(뚜라 텃 우 마잉)대사님의
한국부임도 늦게나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참석을 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님과

은행장님들에게도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Growing Together** 라는 제목으로

한-아세안 협력에 대해 발표를 해주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II.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는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 1989년 부분(무역·투자·여행) 대화관계 수립, 1991년 완전대화관계 구축

오늘날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1,20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양측 인적 교류도 연간 675만명에 이르는 등
아세안은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래
정치·안보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아세안 쌍방향 교류를 위한
아세안 문화원이 건립되는 등*

* '16년 3월 기공식 진행 (부산)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III. 아세안의 성장

내외 귀빈 여러분,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비해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무역규모도 약 **8배 성장****하였습니다.

* ('90년) 1.5% → ('13년) 3.1%

** ('90년) 3,066억달러 → ('13년) 2조 5192억달러

작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단일시장과 생산기지 구축,
균등한 경제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 ASEAN Economic Community :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결성('15.12.31일),
제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

한국정부(산업부)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이러한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25년까지 **총생산량이 연간 7%증가**하고,
1,4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V. 한국과 아세안의 금융협력

작년에 출범한 AIIB는
이처럼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아세안과 한국의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망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MI)**의
역할확대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ASEAN + 3(한·중·일) 회원국에 위기 발생 시 달러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10.3월 발효, 현재 2,400억 달러 규모)

그러나

금융협력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 참여자인 금융회사간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은행장님을 비롯하여,
경험과 역량을 가진 한국의 많은 은행들은
아세안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매료되어
아세안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아세안 금융당국과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고
협의채널을 정례화 하는 등
한-아세안간 금융협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와 행정관행이 우리와 다르고,
현지 **금융당국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과 금융협력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해주신

아세안 대사님들께서는

본국 금융당국과의 가교역할 등

은행을 비롯한 한국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아세안 금융회사들의 **한국진출 관련 애로사항,**
한국의 경험공유 등
대사님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IV.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작년 8월에 이어 개최된 이번 만찬 간담회는
이 모임이 **정례화**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pause]

한국은 지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완연한 가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숨겨진 보물과
같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행주간***을 맞아
가을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산과 강으로
여행을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봄과 가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해 관광을 장려하는 제도 (10.24일 ~ 11.6일)

감사합니다.